

“생산적 복지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로”

- 이근 교수 <한국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강의
-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조찬간담회
- 이언주 의원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형 모델 위한 신산업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 경제상황점검단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를 초청해 <한국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정책과제와 전망>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정책 전망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곳은 날씨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김주영 의원, 민병덕 의원, 허성무 의원, 김현정 의원, 이강일 의원,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의원, 이병진 의원, 박균택 의원, 정진욱 의원, 김동아 의원, 주철현 의원, 김병주 의원, 김남근 의원, 조인철 의원, 어기구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현 의원, 안호영 의원, 권향엽 의원, 오세희 의원, 이원택 의원, 김원이 의원 등 국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근 교수는 “한국은 현재 패권국인 미국과도 다르고 아직 추격 중인 중국과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혁신성, 북부 유럽의 노동 유연성 및 남부 유럽의 안정성 등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이근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가 나아갈 길로 성장과 분배, 고용의 3박자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체제를 갖춘 ‘역량증진형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유연안정형 노동시장, 그리고 현금보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체제가 역량증진형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이근 교수는 과거의 한국 경제 특징이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 많은 일자리였다면 앞으로는 중간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낮은 인구성장, 소수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미국·일본을 추격하던 추격 경제 시대는 이미 지났고, 유럽 모델도 아니고 미국 모델도 아닌 한국만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심히 공감되는 요즘”이라며 “생산적 복지 체제와 역량증진형 국가 모델이 실질적인 산업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끝.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 경제상황점검단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를 초청해 <한국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정책과제와 전망>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연주 최고위원, 경제상황점검단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열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근 교수를 초청해 <한국 자본주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정책과제와 전망>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